

스페인어권 학습자에 대한 한국어 발음 교육 방안

서 경 석

<Abstract>

El método de la enseñanza de la pronunciación del coreano para los hispanohablantes

Con el desarrollo de Corea en varias partes, a los extranjeros les interesa la lengua coreana y cada día más quieren aprender coreano en muchos países. El mundo de los hispanohablantes no es una excepción. El objetivo de este trabajo es presentar cómo enseñar la pronunciación del coreano a los hablantes nativos de español más eficazmente. La pronunciación es decisiva para aprender bien perfecta y fluidamente una lengua y, por tanto, debe hacerse énfasis desde el primer momento del aprendizaje. En este trabajo presentamos unas características de los fonemas coreanos comparando las diferencias con el español y explicamos y analizamos los errores que suelen cometerse por los estudiantes del coreano. Con este análisis proponemos un método indicativo para los ejercicios de la pronunciación del coreano. Así podremos utilizarlo en varios aspectos como crear los materiales educativos efectivos.

[Key Words: Enseñanza de pronunciación / Errores / análisis contrastivo]

[주제어: 발음교육 / 오류 / 대조분석]

I. 서론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커가면서 한국의 경제, 사회뿐 아니라 한국인과 한국 문화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원하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다. 한국어 역시 외국인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하여 많은 외국 학생이 한국어로 오고 있으며 반대로 세계 각지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요구에 따라 역시 적지 않은 한국어 교사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이 한국어를 학습하는 최종의 목표가 의사소통능력에 있다면 의사소통은 한국어를 머릿속으로 이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실제의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하지만 많은 언어교육을 통해서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고 올바른 문법을 사용하여 유창한 모습으로 언어를 구사하더라도 그 발음이 정확치 못하다면 또 자연스럽게 못하다면 의사소통에 장애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이처럼 한국어 뿐 아니라 외국어 교육에서 유창성이란 정확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따라서 발음의 정확성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특히 발음연습은 초기학습단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기교육에서 발음은 어느 다른 것보다 중요하며 연속되는 학습과정에서도 발음연습은 계속되지 않으면 소정의 목표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다.

본 연구의 목적은 스페인어 사용자들이 한국어 학습을 할 때 효과적으로 한국어를 발음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방안을 탐구하는 데 있다. 첫 단계에서는 한국어와 스페인어 두 언어간의 자음과 모음의 음성, 음운적 차이를 살피고, 이러한 차이들로 인해 스페인어권 학습자들이 자주 보여주는 오류를 찾아보며 이어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어 발음교육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지도방법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본 연구는 멕시코 콜리마 대학(Universidad de Colima)에서 2005년도 1년간의 한국어 강의를 토대로 실제 스페인어 사용자들의 오류상황을 조사, 파악한 자료로 이루어졌으며¹⁾ 여기서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스페인어권 학생들에게 한국어 교육의 첫 단계인 발음 교육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1) 강의는 2005년도 1월-12월 동안 멕시코 콜리마 대학 교수 및 학생 10여명을 대상으로 주 6시간씩 이루어 졌다. 읽기 및 듣고 말하기, 쓰기 등 수시로 평가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대한 논의가 될 것이다.

II. 스페인어와 한국어의 음운 대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울 때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은 한글 자모 연습과 그 발음이 될 것인데 그 발음 학습의 기초단계라고 할 수 있는 각 분절음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후의 단어나 문장의 발음까지도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외국인이 한국어를 올바르게 발음하기 위해서는 한국어의 분절음의 개별적인 특성을 바로 알아야 하며 주어지는 음운적 환경도 정확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특히 두 언어간의 음운상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분명히 인식시켜서 한국어 본연의 발음에 익숙하게 연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스페인어와 한국어의 분절음을 대조를 통하여 그 특성을 알아보도록 한다.

1. 모음의 대조

1) 단모음

스페인어와 한국어의 모음 체계도는 다음과 같다.

	혀의 위치		
	전설	중설	후설
고	i	ɨ	ɯ
혀의 높이 중	e	ɨ	o
저	æ	ɚ	

<그림 1> 한국어의 모음

	혀의 위치		
	전설	중설	후설
고	i		u
혀의 높이 중	e		o
저		a	

<그림 2> 스페인어의 모음

위에서 보듯 한국어의 모음은 단모음 10개가 기본을 이루는 반면 스페인어는 단지 다섯 개의 모음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스페인어의 경우 외국인이 스페인어를 배우기에는 비교적 쉬운 편이나 반대로 스페인어 사용자가 한국어와 같은 타 언어를 배우기에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한국어는 기본 단모음이 10개로 스페인어에 대응하는 모음 5개 이외에 다섯 개가 더 있어서 그 발음을 익히는데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즉 스페인어 음소체계에 없는 한국어의 모음을 발음할 경우에는 오류 발생의 가능성이 근본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두 언어의 모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대조해 보면 스페인어의 모음은 /a, e, i, o, u/ 다섯 개로 그 구별이 비교적 분명하다. 하지만 한국어의 모음의 경우는 음운론적으로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다. 동일해 보이는 소리도 엄밀하게 관찰하면 똑같지는 않다. 한국어의 /ɪ/[i]는 기본 모음 [i]보다 조금 낮고 뒤에서 나는 전설 평순 고모음에 속한다. /ɛ/[e]는 기본 모음 [e]와 [ɛ]의 가운데쯤 나는 전설 평순 중모음이다. /ɨ/[ø]는 전설 원순 중모음으로 [we]의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강한 것을 볼 수 있다. /ɘ/[ɛ]는 /ɛ/보다 입을 좀 더 벌리고 내는 소리로 현대 국어에서는 /ɛ/와 /ɘ/ 두 모음의 변별성이 많이 약화되어 구별이 어려워지고 있다. /ɯ/[u]는 /ɯ/보다 조금 앞에서 나는, 후설 평순 고모음이며, /ɤ/[u]는 기본모음 [u]보다 조금 낮고 앞쪽에서 나는 후설 원순고모음에 속한다. /ɯ/[ʌ]는 후설 평순 중모음이다. /ɔ/[o]는 기본모음 [o]보다 조금 낮고 앞에서 나는 후설 원순 중모음이다. /ʌ/[a]는 기본모음 [a]와 [a]의 가운데쯤에서 나는 평순 저모음에 속한다. 이외에도 /ɯ/[y]는 전설 원순 고모음으로 뒤, 쥐, 취 등을 제외하고는 이중모음 [wi]로 발음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후설모음으로는 두 언어에 [u][o]가 동일하게 존재하지만 전설모음과 중설모음에서는 단조로운 스페인어와는 달리 한국어는 비교적 복잡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를 양 언어에 모두 있는 모음과 한국어에만 있는 모음으로 구별해 살펴보도록 한다.

한국어와 스페인어에 모두 있는 모음: 스페인어에 있는 모음은 한국어에는 모두 존재한다.

[i]: 기름, 놀이	[i]: vino, molino
[e]: 세수, 그네	[e]: mesa, café
[a]: 아마, 다리	[a]: vaca, chica
[o]: 오이, 이모	[o]: hotel, mano
[u]: 누나, 매우	[u]: uva, menu

한국어에만 있는 모음: 스페인어에 있는 다섯 개의 모음을 제외한 모음은 한국어에만 있다²⁾.

- /ɰ/[y]: 위, 쥐
- /ɰ/[ø]: 외국, 후퇴
- /ɰ/[ɛ]: 개, 배추
- /ɰ/[ʌ]: 머리, 어머니
- /ɰ/[w]: 그림, 어느

2) 이중모음(복모음)

한국어의 이중모음은 11개로 다음과 같다.

/ㅈ, ㅉ, ㅊ,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한번에 발음되고 한글자로 표기되는 한국어의 이중모음과는 달리 스페인어의 이중모음은 두 모음의 연속이란 점에서 한국어와는 다르다. 또한 스페인어가 상승 이중모음과 하강 이중모음을 다가지는 데 반해 한국어는 하강 이중모음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한국어의 이중모음은 크게 j계 이중모음과 w계 이중모음, 그리고 /ɰ/[wi]로 구분된다. j계 이중모음으로는 /ㅈ/[ja], /ㅉ/[ja], /ㅊ/[jo], /ㅍ/[ju], /ㅑ/[je], /ㅓ/[je] 등 6개로 이들 이중모음들은 조음 시에 /l/모음 뒤에 이어 /ㅈ, ㅉ, ㅊ,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를 발음하는 방식이다. 단모음의 경우와 유사하게 /ㅈ/와 /ㅉ/는 사실상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w계 이중모음으로는 /ㅗ/[wa], /ㅛ/[wa], /ㅜ/

2) /ɰ/ 와 /ɰ/는 단모음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실상 이중모음으로 실현되고 있다.

/[we], /세/[we] 등 4개가 있는데 이 모음들은 /T/ 모음에 이어 /t, ɲ, ð, ʎ/ 를 발음하게 된다. 그러나 복모음 /내, 세, 외/는 실제 발음의 차이가 매우 작아 실제로 구별하기 매우 어렵다.

한국어와 스페인어 두 언어에 다 존재하는 상승 이중모음³⁾:

/ㅈ/[ja]:	야채, 임야	[ia]:	piano
/ㅊ/[jo]:	요청, 학교	[io]:	violín
/ㅋ/[je]:	예절, 실례	[ie]:	cielo
/과/[wa]:	과일, 너와	[ua]:	cuando
/세/[we]:	셋터, 성취	[ue]:	pueblo
/ㅠ/[ju]:	유명, 법규	[iu]:	viuda

한국어에만 존재하는 상승 이중모음: 스페인어 화자가 학습 시 어려움을 겪는다.

/ㅋ/[jʌ]:	여자, 비너
/ㅍ/[jɛ]:	개, 애기
/더/[wʌ]:	뒤, 뒤
/내/[we]:	돼지, 통쾌
/ㄴ/[wi]:	의사(수평적 이중모음)

스페인어에서만 사용되는 하강 이중모음: 한국어에서는 이중모음이 아니고 두 모음이다.

[ai]:	paisaje	사이다
[oi]:	boina	보이다
[ei]:	peinar	베이다
[au]:	gaucho	가운
[eu]:	deuda	데우다
[uo]:	cuota	두오
[ui]:	cuidar	부인

3) 동일해 보이지만 사실상 두 언어간 발음 속도의 차이가 있음을 Suh(2007)에서 언급한 바 있다.

2. 자음의 대조

한국어의 자음은 복자음을 포함해서 19개이며 스페인어의 경우는 18개로 나타난다. 이 두 언어의 자음 체계도는 다음과 같다.

조음방법	조음점	양순음 치경음 경구개음 구개음 후음				
		평음	ㅂ	ㄷ		ㄱ
파열음	경음	ㅃ	ㄸ		ㄲ	
	격음	ㅍ	ㅌ		ㅋ	
파찰음	평음			ㅈ		
	경음			ㅊ		
	격음			ㅊ		
마찰음	평음		ㅅ			
	경음		ㅆ			ㅎ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그림 3> 한국어의 자음

조음방법	조음점	양순음 순치음 치간음 치경음 경구개음 구개음					
		유성음	b			d	
파열음	무성음	p			t		k
			f	θ	s		j
파찰음						ʃ	
비음		m			n	ɲ	
	유음				l	ʎ	
진동음					r/rr		

<그림 4> 스페인어의 자음

1) 파열음

두 언어에는 공히 양순음, 치경음, 구개음 등에 파열음이 존재한다. 한국어의 파열음은 두 조음기관이 접촉하여 구강을 막았다가 개방하면서 조음하는 소리로 /ㅂ, ㅃ, ㅍ, /, ㄷ, ㄸ, ㅌ, /, ㄱ, ㄲ, ㅋ/ 등이 있다. 이 파열음은 평음과 경음, 격음으로 나누어 조음될 수 있다. 스페인어의 파열음은 유성음과 무성음으로

구분되며 조음점에 따라 /b, p/, /d, t/, /g, k/로 구별된다. 무성음의 경우 스페인어에서는 격음이 아닌 경음만을 사용한다는 점이 스페인어를 비롯한 라틴어 계열의 주요한 특징이며, 따라서 [pa]는 [파]가 아닌 [빠]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ㅂ	방	b	banco
ㅍ	빵	p	padre
ㅍ	팡		

2) 파찰음

파찰음은 파열음의 속성과 마찰음의 속성을 함께 지니고 있는 소리이다. 잇몸의 뒤와 경구개의 앞부분에서 조음되는 소리인 파찰음은 한국어에는 /ㄷ, ㅌ, ㅈ/가 있으며 스페인어의 파찰음은 /tʃ/ 하나이다. 즉 스페인어에는 [ㄷ], [ㅌ] 등의 발음을 찾아볼 수 없다.

ㄷ	장구		
ㅌ	짱구		
ㅈ	창고	ch	chico

3) 마찰음

좁혔다가 마찰하며 개방되는 소리인 마찰음은 한국어에는 /ㅅ, ㅆ, ㅎ/이 있으며 스페인어의 마찰음은 모두 무성음으로 역시 조음기관에 따라 /f/, /θ/, /s/, /j/ 등이 있다.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마찰음이 스페인어에 존재한다. 한국어의 ㅎ과 스페인어의 j는 다르게 나타나며 한국어에는 /ㅅ/과 /ㅆ/이 구별되는 반면 스페인어의 경우는 이 구별이 없어 혼동 가능성이 있다.

ㅅ	살	s	sal
ㅆ	쌀		
ㅎ	하루	j	jabón
		θ	zapato
		f	finca

4) 비음과 유음

한국어에서는 /ㅁ, ㄴ, ㅇ/이 콧소리로 나타나며 유음 /ㄹ/은 초성에서는 [r]로 발음되며⁴⁾ 종성에서는 [l]로 발음된다. 스페인어에는 비음으로 /m/, /n/ 이외에 경구개 비음 /ɲ/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유음은 /l/ 이외에 /ʎ/이 고유 특징으로 간주되며, 진동음에는 /r/이 있는데 이는 단순 진동인 /r/와 다중진동인 /rr/로 구별된다.

ㅁ	마루	m	mano
ㄴ	나비	n	no
		ñ	niño
ㄹ	라디오	l	loco
		ll	calle
		r	caro
		rr	carro, roca
ㅇ	강		

III. 스페인어권 학습자에게 자주 나타나는 오류

1. 모음

1) 단모음

이미 앞서서 한국어와 스페인어의 모음구조에서 살펴본 것처럼 /a, e, i, o, u/ 등 다섯 개의 모음만을 갖고 있는 스페인어와 달리 10개의 단모음과 11개의 복모음은 한국어를 학습하는 스페인어 사용자에게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이다. 단순히 5개만 구별하던 모음체계를 기본모음 10개로 구별하는 일은 쉽지 않다. 당연히 두 모음 구조사이에서 상당한 혼동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 일반적으로 외래어를 제외하면 한국어에서 음소 /ㄹ/은 어두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ㄴ/ㄷ

가장 빈번한 오류는 /ㄴ/와 /ㄷ/의 혼동에서 나타난다. 특히 /ㄷ/의 발음을 매우 힘들어하며 모음 /ㄷ/의 불안정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익숙한 /ㄴ/로 발음하게 된다. 따라서 모음 /ㄴ/는 비교적 정확히 발음되는 반면에 /ㄷ/는 /ㄴ/처럼 발음하게 되고, 듣기에 있어서 역시 /ㄷ/를 /ㄴ/로 듣게 된다. ‘꿈’을 ‘꿈’으로 듣게 되며 따라서 다시 ‘꿈’으로 발음하게 된다. 이러한 /ㄷ/와 /ㄴ/의 혼동은 익숙한 /ㄴ/마저도 때로는 의식적으로 /ㄷ/로 발음되기도 한다.

(오류 예)

더위: 토의->토위

무엇입니까: 무오십니까

어머니: 어모니

공부: 경부

포도: 포더->퍼도, 오빠: 어빠, 또래: 더래->떠래, 세모: 세머, 도시:

터시, 고빼: 커피

ㄷ/ㅌ

또 많이 일어나는 모음 오류중의 하나는 /ㄷ/와 /ㅌ/의 혼동이다. 여기에서 또 스페인어에 존재하는 모음 /ㄷ/(e)는 큰 어려움 없이 듣고 발음하게 되지만 스페인어에 없는 모음 /ㅌ/의 발음에 있어서는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의 /ㅌ/의 등장으로 인해 스페인어 사용자들은 이 두 소리의 구별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때로는 /ㄷ/로 바로 들은 것도 /ㅌ/와의 혼동으로 망설이거나 자신 없어하게 된다⁵⁾.

(오류 예)

침대: 침테

재미있다: 체미있다

갈대: 갈테, 또래: 또레

돼지: 두에지

세모: 새모

5) 한국어 화자에게도 모음 ‘에’와 ‘애’의 구별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스페인어의 경우에서 이 두 모음이 구별되지 않음으로 발음상 어려움을 줄어 들 수는 있지만 글자로 표기에서는 어려움은 배로 증가하게 될 수 있다.

ㅡ의 문제

역시 스페인어에 존재하지 않는 모음 /ㅡ/는 스페인어권 한국어 학습자에게 또 다른 어려움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 대응 모음이 없음으로 인해 많은 학습자들이 가끔 유사한 발음으로 대체해서 발음하는 것을 보게 된다. 즉 /ㅌ/ 또는 /ㄷ/로 대체되던가 아니면 /ㄱ/로 대체되는 경우를 볼 수도 있고 때로는 모음이 아예 없어지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오류 예)

있습니다: 있십니다, 있섭니다
 이름이: 이림이, 일미
 없습니다: 업섭니다, 압습니다
 기름: 기름, 스키: 수기

ㅡ

/ㅡ/ 역시 스페인어 사용자에게는 발음이 용이하지 않은 모음이고 따라서 구별에 힘이 드는 편이지만 이 모음을 가진 단어가 많지 않은 관계로 그 빈도는 적게 나타난다. /ㅡ/ 대신 /ㅣ/이나 /ㅛ/로 사용됨을 볼 수 있다.

(오류 예)

의자: 이자, 으자

ㅍ/ㅑ/

앞서 언급한 /ㅡ/ 모음의 어려움으로 인해 /ㅡ/가 [ㅍ]로 나타나기도 하고, 더 많은 경우는 스페인어 화자에게는 /ㅍ/가 [ㅑ]로 들려 표기되기도 한다.

(오류 예)

컴퓨터: 컴피터

ㅍ/ㅑ/ㅑ/ㅑ

복모음, 이중모음의 경우에는 한국어의 경우 일반적으로 단번에 발음되는 반면 스페인어의 이중모음은 두 모음이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스페인어권화자는 한국어의 이중모음에서 상당한 혼란을 보이고 있다.

(오류 예)

죄: 쥬, 쟈

기

/기/ 모음이 [기]로 발음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오히려 /기/가 [-기]로 잘못 발음되는 경우는 흔히 나타난다.

(오류 예)

더위: 토의

추위: 주의

귀신: 규신

2) 이중모음

이중모음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단모음의 구별의 어려움과 그 혼동이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단모음 /ㄱ/와 /ㄴ/의 혼동이 이중모음 /ㄲ/와 /ㄴ/의 혼동으로 이어지고, /ㅈ/와 /ㅊ/의 구별 어려움이 이중모음 /ㅈ/와 /ㅊ/에서도 나타난다.

ㄲ/ㄴ

(오류 예) 교실: 겨실

ㅈ/ㅊ

(오류 예) 얘기: 예기

ㅈ/ㅊ

(오류 예) 에누리: 예누리

3) 이중모음 풀어쓰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스페인어의 이중모음은 이어 발음되기 때문에 스페인어 화자가 한국어의 이중모음을 스페인어처럼 인식하여 복모음을 사용하는 대신 단모음을 이어 발음하고 표기하게 되는 현상을 보인다.

(오류 예)

가면: 가미언

멸치: 미얼치

2. 자음

ㄱ/ㅋ/ㄲ

스페인어 사용자들은 자음 /ㄱ/ 과 /ㄲ/, 그리고 /ㅋ/의 발음에 있어서 혼란을 겪는다. 한국인이 비교적 쉽게 이 세 자음을 구별하는 것에 비해 스페인어 사용자들은 스페인어에 존재하지 않는 /ㅋ/으로 인하여, 또는 어두에서의 /ㄱ/ 발음에서 이 세 자음을 몹시 혼동하게 된다. 한국인이 스페인어를 배울 때와는 달리(주, 한국인은 이미 /ㄱ, ㅋ, ㄲ/의 세 자음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그 중 /ㅋ/만이 스페인어에는 없다는 것을 별 어려움 없이 이해하게 된다) 스페인어 사용자는 스페인어의 /k/가 해당되는 것이 한국어의 ㄲ인지 아니면 ㅋ인지를 알지 못하게 된다. 이는 스페인어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c 발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아니면 g가 아닌 다른 것과는 구별할 필요가 없었던 데에서 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한국어 어두에서의 /ㄱ/ 첫 발음을 바로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매우 큰 것을 볼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어두 첫 /ㄱ/ 이 그들에게는 단순한 /ㄱ/(g)으로 인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기차’의 경우 스페인어 사용자들은 많은 경우에 ‘키차’로 이해하게 된다. 이는 음성학적인면에서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일로 한국어의 ㄱ도 어두 첫 발음(기차의 기)과 모음사이의 /ㄱ/은(오기에서의 기) 서로 다른 변이음이 되는 것이다. 이는 /b, d, g/의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변이음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어휘 가운데의 /ㄱ/은 비교적 문제가 적으나 어두의 /ㄱ/은 여러 가지로 혼동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오류 예)

사과 - 콰일, 키차/끼차 - 오기

ㅋ와 ㄲ의 혼동도 적지 않다.

(오류 예)

끄다/크다, 카드/까드, 꽃/꽃
컴퓨터/검비더

ㄱ/ㅋ

(오류 예) 가면/카면, 과부/콰부, 코/고, 스키/스기

ㄱ/기

(오류 예) 자꾸/자구, 깎두기/각두기, 가랑비/까란비, 가지/까지

ㄷ/테/뚜

스페인어에서는 무성 파열음 /t/가 경음으로 발음되며 격음이 없는 이유로 한국어 /테/과 의 혼동이 발생하고 있으며 단어 첫 음으로의 /ㄷ/은 /테/과 혼동이 되는 경향을 보인다.

(오류 예) 도시/토시, 갈대/갈테, 더위/토의, 두부/투부, 돼지/퇴지
토요일/도요일/더요일
또래/터래

ㅂ/표/뽀

양순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표/와 /뽀/의 구별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오류 예)
바지/파지, 부산/푸산, 부상/푸상
과부/과푸, 두부/두푸
포도/버도, 피난/비난
선풍기/선분기
고빼/커편/코편

ㅅ/스/츠/썸

스페인어에 없는 /스/과 /썸/을 듣고 다른 구개음 /츠/과 혼동현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치경음인 /스/이나 /썸/과도 혼동하고 있다.

(오류 예)
침대/심대/짐대, 재미있습니다/체미있습니다, 집/십/칩, 쥐/쇠
도시/더지, 귀신/귀진, 준비/순비, 종이/선이
자꾸/차꾸, 제왕/체왕, 가지/까치, 준비/춘비, 종이/창이
추위/주위

ㄹ

유음 /ㄹ/은 큰 혼동은 없지만 경우에 따라 두개의 /ㄹ/을 하나로 표기하기

도 한다.

(오류 예)

가라/카라

빨래/빠래

ㅎ/ㅇ

한국어 /ㅎ/은 스페인어의 /j/보다 약한 관계로 한국어 /ㅎ/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난다.

(오류 예)

학교/아기오

3. 받침 ㅇ

받침의 오류와 그에 관계하여 일어나는 문제는 비단 스페인어 학습자에 한정되어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어의 받침 사용규칙이 단순하지 않음으로 하여 학습자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국어의 받침 규칙으로 인한 어려움 외에 순수 발음상 스페인어 화자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 몇 가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받침 ㅇ은 스페인어 화자에게는 대부분이 /ㄴ/과 혼동되어 나타난다.

(오류 예)

창문/찬문, 영국/연국, 강물/간물

선풍기/선푼기, 종이/ 선이, 가랑비/가란비, 인형/인현, 제왕/제관

한파/항파, 부산/부상

4. 음절형성

발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음절 표기상의 문제로 인하여 발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우선 알파벳의 표기에 익숙한 스페인어 사용자는 한국어에서도 가로표기를 하기도 한다. 혹은 단순한 발음위주로 인한 표기 오류 또는 자음 ㅇ을 소리가 없다고 하여 빠뜨리는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오류 예)

오그 빠, 기나자자, 기키 투르, 가나다, 만하다
케르네스또, 커머니, 장 키키서

IV. 발음 오류에 대한 지도방법

1. 기초 발음 지도

1) 모음

모음 구별의 기초가 되는 혀의 위치나 높이로는 단모음이 10개이고 이중모음이 11개인 한국어의 모음을 지도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한국어의 모음 구별 요소 중의 하나인 입술모양과 입의 벌림 정도에 초점을 맞추어 지도가 되어야 한다. 입술모양에 따라 원순인가 비원순인가를 결정하게끔 하고 원순에 속한 (기)(니)(ㄱ)(ㄴ)모음을 입술모양을 의식하고 발음연습하게 한다. 입의 열림 정도에서도 | > ㅏ > ㅓ, ㅑ > ㅕ, ㅓ > ㅗ > ㅛ, ㅓ > ㅛ의 각각의 순서대로 입의 벌림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교육시켜야 한다⁶⁾.

원순모음 (vocal redonda)

(기)(니)

(ㄱ)(ㄴ)

입의 열림 정도

조금 열린 상태(혀는 높은 위치)		기	니	ㄱ	ㄴ
중간정도 열린 상태(혀는 중간위치)	ㅑ	ㅕ	ㅗ	ㅛ	
비교적 많이 열린 상태(혀는 낮은 위치)	ㅓ		ㅗ		

6) 앞에서(주2) 언급한 바와 같이 ㅑ와 ㅕ는 사실상 이중모음으로 발음되고 있는 현실적인 면을 고려하여 환경에 따라 단모음의 음가를 가르치되 실제적으로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정명숙(2002) 참조.

2) 자음

스페인어에서 기본적 자음의 구분요소인 무성음과 유성음의 구별보다도 한국어에서는 무성음 내에서의 구별이 더욱 중요한 요소이다. 한국어의 유성음은 비음과 유음인 /ㄱ, ㄴ, ㅇ, ㄹ/ 과 단어 중간에서 나타나는 /ㄷ, ㄸ, ㄱ/들을 말하게 되며 나머지는 모두 무성음으로 나타나게 된다. 무성음 내에서는 평음, 경음, 격음으로 구별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구별교육이 우선 되어야한다. 평음은 조음기관(입술, 이, 치경, 구개 등)의 근육이 정상적인 경우의 소리라면 경음은 조음기관의 근육이 긴장되어 나는 소리, 즉 조음기관에 힘이 들어갔다가 풀어지며 나는 소리임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반면에 격음은 공기배출과 함께 나는 소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같은 조음점에서 세 가지 방법으로 조음이 되고 있다는 것이 교육에서도 주요 특징이 된다. 한국어와는 달리 스페인어에서는 격음이 최소대립어를 구성하진 않기 때문에 스페인어 화자에게 한국어의 격음을 학습시켜야하고 그 격음은 유기음이 스페인어의 경음보다 확연히 두드러진다는 것을 주시시켜야한다.

조음점에 대해서는 타 언어들과 유사하기 때문에 각 조음점과 함께 그 소리를 지적해 주면 될 것이다. 양순음(입술소리), 치경음(혀끝과 치경), 경구개음(혀 윗면과 경구개), 구개음(혀 뒷부분과 연구개), 후음(목구멍)의 소리와 위치를 스페인어와 연계 교육한다.

특히 /ㄷ, ㄸ, ㄱ/의 경우에는 어두에서는 무성음으로 발음되고 모음사이 즉 단어 중간에 사용될 때는 유성음이 된다는 점에서 동일한 글자지만 두 가지의 소리로 나타남을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

(예)

반다 다리 군두 무성음 p t k
가방 지도 휴가 유성음 b d g

이어 초급단계 이후에는 자음의 동화 현상⁷⁾이라던가 자음 강화현상⁸⁾ 등을

7) 자음동화란 자음과 자음이 만날 때 어는 한 자음이 다른 자음의 영향으로 같거나 유사한 소리로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한국어에서는 보통 비음화(국물->궁물, 언는다->언는다)나 설측음화(신라->실라, 달나라->달라라)를 볼 수 있다.

8) 여기에서 자음 강화현상은 경음화나 격음화를 들 수 있는데 이는 평음이 경음이나 격음으로 소리 나는 현상을 일컫는 말로 경음화는 ㄱ, ㄲ, ㅋ, ㄸ, ㅌ, ㅍ, ㅊ, ㅍ, ㅆ, ㅈ, ㅉ,

지도하면서 글자와 실제 발음의 관련성을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 화자는 영어를 배울 때 /r, l/의 구별과 정확한 발음이 그리 단순하지 않음을 경험한 바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스페인어 화자들에게도 한국어의 유음의 발음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르로 단순히 표기되는 한국어에서는 이 구별여부가 외국어 말투를 좌우하게 된다. 한국어에서는 /ㄹ/은 주어진 환경에 따라 다르게 실현되는데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는 /r/과 유사하게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는 /l/과 유사하게 소리 난다. 여기서 /r/는 스페인어 doctor, pared 등에서의 소리를 말하며 /l/은 loco, libre 등의 첫 머리에서의 소리를 말한다. 그러나 모음사이 r인 르은 radio, rosa 등의 첫 음절에서 나오는 /r/과는 또 다른 소리이며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 실현되는 /ㄹ/도 col, nopal 등의 단어 말에서의 /l/과는 다른 소리임을 이해시켜야 한다. 이러한 /ㄹ/의 소리가 한국어의 소리에 어색하지 않게 하도록 두 언어간의 차이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2. 주요 오류 발음 지도

1) 모음

ㄱ와 ㄴ

이 두 모음은 한국어의 학습에 가장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모음이므로 처음부터 확실히 구별을 하여 익히고 습득하여야 한다. /ㄱ/가 입술을 모아서 소리 내는 원순음에 속하고 혀가 뒤 쪽에 위치하고 그 높이가 중간 정도라면 /ㄴ/는 입술이 조금 더 열린 상태에서 혀가 조금 앞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나 발음연습에서는 혀의 위치는 사실상 큰 변화가 안 되므로 입술이 모아진 정도, 입이 좀 더 열리는가의 여부로 교육해야 한다. 즉 스페인어 화자들이 익숙한 ㄱ에서 조금, 아주 조금 입을 더 벌리고 발음하게 하고 그에 익숙해지게 한다. 역시 같은 방법으로 교사가 발음하여 차이를 느끼게 한다. 모음차이의 활용성이 강한 두 단어를 선정 반복적으로 익히고 구별하게 한다.

츠 등으로 끝나는 말 뒤에 ㄱ, ㄷ, ㅂ, ㅅ, ㅈ 등으로 시작하는 다른 낱말 또는 어미가 붙을 때 일어나며(낮잠->난잠, 줘다->줍따), 격음화는 ㅎ이 평음 ㄱ, ㄷ, ㅂ, ㅈ의 바로 앞이나 뒤에 올 때 일어난다(좋다->조타, 독하다->도카다).

- (예) 오빠, 오후, 어름, 어머니
 거르다, 고르다
 솔, 설

개 와 개

스페인어에 존재하는 모음 /ɛ/를 중심으로 생소한 모음 /ɨ/를 교육해야한다. /ɛ/에서의 혀의 높이가 중간정도라면 /ɨ/에서는 혀가 낮은 위치에 있게 되고 입 끝이 양쪽으로 벌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역시 동일한 단어로 모음을 변화시켜 다른 단어가 됨을 보여주고 그 의미에 따라 구별하여 사용하는 연습을 시켜야한다.

- (예) 개, 개
 네 것, 내 것

—

스페인어에 없는 모음 /ɨ/를 발음하는 것은 무척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미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이 모음을 여러 다른 것들과 혼동하여 발음하게 됨을 보게 된다. 때로는 /ɪ/로, 때로는 /ɨ/로 발음하기도 하며 이 모음이 아예 사라지기도 한다. 이는 스페인어뿐 아닌 많은 서양언어에서 /ɨ/모음을 따로 두지 않고 자음의 독자적 발음 시 사용하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모음의 교육에는 지속적인 시범발음과 함께 독자적 자음 발음시의 잠재된 모음을 인식 시켜줄 필요가 있다. Carmen과 casa는 두 음절로 된 스페인어 단어이다. Car-men과 ca-sa로 음절이 분리 되는데 앞 음절 Car와 ca를 비교하면 앞 음절에 /r/ 이 하나 더 들어가며 이 발음은 Car에서 ca를 빼면 남는 발음으로 학습자들은 이 /r/를 발음할 수 있게 되며 그때의 모음상태를 /ɨ/로 설명하여 인식시켜야 한다. 또는 스페인어 이중자음 음절 bra에서 ra만을 뺀 경우의 /b/ 발음의 모음 형태를 가상하여 그것을 /ɨ/로 하도록 한다.

- (예) eɛscuela
 meɛsquita
 cabɛra

2) 자음

ㄱ/ㄲ/ㅋ

스페인어 발음을 통한 발음의 차이를 익히고 그 차이를 한국어에 반영한다. 이를테면 gusano, seguro 등에서 /g/의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게 하고 한국어로 써보게 한다. 적절한 단어가 없으면 만들어서 연습한다. 물론 스페인어에 없는 /ㅋ/는 영어의 case 같은 어휘를 사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예) masagur/masacur
garasin/carasin

ㄷ/ㄸ/ㅌ, ㅈ/ㅉ/ㅊ

이것도 위에서와 동일한 방법을 통하여 연습한다.

(예) denpez/denbez/tenbez
dimapo/dinabo/timabo/timapo

또는 순서대로 읽은 뒤 듣고 들은 대로 써보게 한다.

(예) tatil/datil/taco
parco/barco
corro/gorro

반대로 이것들을 읽게 하고 발음대로 써보게 할 수도 있다.

ㅊ/ㅈ/ㅉ

이 자음의 구별은 앞의 것들과는 성격을 또 달리한다. 스페인어에는 /ㅈ/와 /ㅉ/의 발음에 해당하는 것이 없는 관계로 많은 혼란이 일어난다. 따라서 이 세 발음의 차이점을 보여주어야 한다. mucho와 chimenea의 ch사이에는 발음이 완전히 같은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느끼게 한다. 별도로 /ㅉ/ 발음을 위한 교육이 있어야 한다. 아르헨티나의 yo의 발음 경향 등을 통하여 설명하거나 영어의 예를 들 수도 있다. 즉 각 소리를 구별하기 위한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어서 /ㅈ/의 강한 발음이 교육되어야한다. 그렇게 함으로 /ㅊ/와의 구별이 될 수 있다.

(예) chico/chimenea

r-l (르)의 문제

역시 스페인어 단어를 사용하여 발음하고 차이를 느끼게 한다.

palo/caro의 경우 모두 두 음절로 발음되지만 한국어로 파악되는 음절의 발음은 다르다. palo에서는 /l/이 두개의 르을 갖게 됨을 볼 수 있으며 caro에서는 르이 하나 있음을 깨닫게 한다.

caldo/pardo의 경우는 /l/이 cal의 한 음절 속에서 받침의 역할을 하게 되나 pardo에서는 r가 긴 음절로 인하여 한국어에서는 사실상 또 다른 음절을 구성 모음 /-r/를 이루게 됨을 설명한다. 따라서 모음에 대한 설명도 보충될 수 있다.

ㄴ/ㅇ의 받침의 문제

마찬가지로 스페인어의 단어를 활용하여 일단 발음의 이해를 하게한다.

(예) pin/ping

pin과 ping을 발음시키면서 차이를 확인시키고 이때 ping의 ng소리가 ㅇ받침임을 이해시킨다. 이 단어가 ㅇ 받침을 설명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스페인어 사용자들은 받침 ㅇ 발음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침 ㅇ에 어려움을 갖는 것은 이 발음이 대부분 사실상 두 음절 사이에서 나뉘기 때문이다. 스페인어에서의 ㄴ받침은 별도로 분명이 구별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비교 설명하여 분명히 이해하도록 한다.(andar-ancla)

(예) insecto, ante, inferior, indio, íntimo

스페인어 사용자들이 동일하다고 보는 n도 사실은 다른 소리임을 지적한다.

(예) inglaterra, ingenireo, ángel, engrase, inca, extranjero, instinto, inyección, congelado

3) 가로 쓰기 교육

기본적인 단어음절 교육이 우선이다.

한국어의 음절은 자음+ 모음+(자음)임을 강조하고 음절 구성없이 자음이 혼자 사용되거나 모음이 자음 없이 쓰이지 않도록 연습한다.

한 단어 내에서 자음 모음이 계속적으로 사용되어 한 단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어는 음절의 결합임을 지적한다.

단어 사과는 ‘사+과’가 아니라 ‘사’와 ‘과’ 두음절의 합이라고 보아야한다. 다른 예를 보면 단어 어머니는 ‘ㅇ ㄱ ㅏ ㄱ ㅏ ㄴ ㅣ’의 자모음 6개의 결합이 아니라 자모음의 결합 ‘어’가 한 음절을 구성하고 다른 자모음의 결합인 ‘머’와 그리고 또 다른 자모음의 결합인 ‘니’, 이렇게 3음절이 합하여 단어 어머니가 됨을 지적해야한다. 이에 의해서 받침현상이 쉽게 설명될 수 있다.

V. 결론

발음교육은 외국어 학습에서 처음부터 강조되어야 할 부분일 뿐 아니라 모국어로부터의 간섭현상을 막기 위해서 집중적인 훈련이 필요하게 된다. 한국어 가르치는 첫 단계는 한글 자모와 그에 대응하는 발음을 정확히 가르치는 것으로 정확한 발음은 한국어는 물론 스페인어의 음운체계를 바로 인식하는데에서 시작된다. 본 연구에서는 두 언어의 음운을 대조분석하고 스페인어권 화자들의 실제 한국어 교육에서 나타나는 발음 오류를 분석했으며 그에 따른 한국어 발음 교육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모음을 모음 체계 속에서 음가와 조음위치를 인식하도록 지도하되 몇 개의 모음을 상호 비교하면서 지도하도록 한다. 특히 한국어에만 존재하는 모음을 집중하여 반복적으로 청취 및 발음 연습을 하도록 한다. 자음에서는 스페인어에 존재하지 않는 평음, 격음, 경음의 구조의 지도를 중심으로 교육하고 대립어를 통해서 반복 발음 및 청취연습, 받아쓰기 등을 집중적으로 한다. 물론 본 연구는 일부 지역 제한된 인원의 오류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으로 전반적인 한국어 발음교육의 원리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본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교재의 개발 등 다양한 면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교육하는 것이 의사소통능력을 배양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 의사소통의 효율성은 기본 발음의 구별 능력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강현화 외(2003), 『대조분석론-한국어 스페인어 문형대조를 바탕으로-』, 역락.
- 김선정(1999), 『영어모국어 화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교육 방안』, 한국어교육, 10-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원필(2003), 『국내 스페인어 학습자들의 강세오류현상』, 서어서문연구, 27, 469-491.
- (2005), 『국내 스페인어 학습자들의 발음에 대한 지역적 특징 분석』, 스페인어문학, 36, 377-391.
- 박경수(1995), 『외국어 교육론』, 형설출판사.
- 박병철(2005), 『체코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교육 방안연구』, 이중언어학, 28, 111-134.
- 박숙희(2007), 『한국인의 스페인어 학습 시 음운적 오류 유형과 상호 교정시스템의 적용』, 스페인어문학, 44, 407-419.
- 박인숙(2000), 『El Coreano』, 일조각.
- 신문대학교(2000), 『한국어 실용회화(스페인어)』, 생각하는 백성.
- 성희제(2003), 『한국어 초기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음운교육』, 한국언어문학, 50, 한국언어문학회.
- 송향근 (2004), 『핀란드어 모국어 화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방안』, 이중언어학 25, 113-127.
- 신지영(2000), 『말소리의 이해: 음성학, 음운론 연구의 기초를 위하여』, 한국문화사.
- 연세대 한국어학당(1995), 『한국어 1』, 연세대학교 출판부.
- 이정희(2003),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연구』, 박이정.
- 이주행(2002), 『한국어의 발음교육방법-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중언어학 20, 43-56.
- 정명숙(2002), 『한국어 발음 교육의 내용과 방법, 박영순 편 21세기 교육학의 현황과 과제』, 419-440, 한국문화사.
- 한재영 외(2003), 『한국어 발음교육』, 한림출판사.
- 허웅(1982), 『국어음운론』, 정음사.

- Alacos, E. (1983), *Fonología española*, Madrid, Gredos.
- (1994),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
- Halle, M. Y G. Clements (1983), *Problemas de fonología*, Minerva ed.
- Hualde, J. Y A. Olarrea (2001), *Introducción a la Lingüística Hispánica*, Cambridge.
- Manteca, A. (1987), *Lingüística General*, Madrid, Cátedra.
- Quilis, A. y J. Fernández (1975), *Curso de fonética y fonología española*, Madrid, CSIC.
- Ramirez, F. (1986), *Gramática española, 2. Los sonidos*, Madrid, Arco/libros.
- Suh, Kyung-Suk(2007), “Estudio Comparativo de diptongos entre el coreano y el español-transcripción de diptongos españoles al coreano”, Actas del Sexto Congreso de Hispanistas de Asia, 151-158.

논문투고일자: 2007년 11월 11일

심사완료일자: 2007년 12월 8일

게재확정일자: 2007년 12월 10일

서경석(Suh, Kyung-Suk)
계명대학교 스페인어중남미학과
E-mail: suhahn@unitel.co.kr